



www.akht.or.kr

#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amp; Tourism



##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와 취업준비 활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on wage: focus on university graduates in tourism major

명유진\* · 임은순\*\* · 서민정\*\*\*

Myoung, You-Jin · Yim, Eun-Soon · Seo, Min-Jung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 youjin511@naver.com, 관심분야: 채용경제, 인적자원개발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학 교수, esyim@sejong.ac.kr, 관심분야: 관광경제, 계량경제(교신저자)

\*\*\* 유안대학교 호텔관광전공 강사, mer926@hotmail.com, 관심분야: 호텔경영, 채용경제

### 요약

본 연구는 관광전공 졸업자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준비 행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진로교육 및 취업준비 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24.0과 STATA 15.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정, 카이스퀘어 검정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의 임금이 높고, 이직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임금이 낮았다. 그리고 졸업대학교와 사업체가 동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는 남성, 학점이 높고, 취업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높았으며 전라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 서울권 대졸자에 비해 임금이 낮았다. 셋째,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높고, 기업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낮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4년제 대학 관광전공 졸업자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 개선 및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취업준비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 핵심용어

진로탐색 행동,  
취업준비 활동,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고용형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of tourism major graduates in career exploration program,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average wage of current job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university graduates majoring in tourism management to enhance a differentia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improvement area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7 (GOMS 2016) data were analyzed in this study. Chi-square test,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24.0. and STATA 15.1. The analysis result of present job is that higher score in graduation examination, participant in employment camp variable are positive impact in wage but preparation turnover variable is negative impact in wage. The analysis result of regular employment is location of graduate university is Seoul metropolitan area, participant in career and job-related subject and job experience program variable is positive impact in wage but corporate recruitment fair variable is negative impact in wage. The male of regular employment group have the highest but female of irregular employment group have the lowest and a group of preparing for turnover is lower in wa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development for systematic program of career exploration and employment preparing for tourism management major graduates to enter the successful labor marke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 KEYWORD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employment status

### ACCEPTANCE INFO.

2021.02.11. 원고 접수  
2021.02.19. 1차 수정본 접수  
2021.02.21. 2차 수정본 접수  
2021.02.25. 3차 수정본 접수  
2021.02.26. 최종 수정본 접수  
2021.02.26.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 I. 서론

2019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3.3%로 2018년도 64.2% 대비 0.9%p 감소하고 있으며(교육부, 202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채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국내 청년층(15세~26세)의 확장 실업률이 25.6%로(통계청, 2020),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김난영, 2020; 한국경제, 2020. 08. 1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층의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4년제 대졸자 중 약 30%는 생계를 위한 '일단 취업부터 하자' 라는 취지의 하향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조선비즈, 2019. 12. 23). 또한, 대학생들의 20% 이상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로탐색 과정없이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하고 있어 제대로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은애·진성미, 2015; 이지연 등,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실질적으로 기업, 공기업 및 중소기업의 퇴사 이유가 '실제 업무와 생각했던 것이 달라서' 라는 응답의 비율 높은 것으로 봤을 때(한국경제, 2015. 09. 21),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 및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재학생의 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이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이에 따른 관광시장 및 산업의 위축은 역대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관광분야에도 비대면 기술(VR·AR)을 도입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대영·이수진, 2020).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사업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진영·최장수, 20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현재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사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있다. 이에 관광전공자의 관광업계로의 취업률이 20%대로 낮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7), 호텔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의 질과 근무조건이 좋지않아 이직률이 30%로 높게 나타났다(김진, 2019). 특히 4년제 대학의 관광전공졸업자의 이직이유가 '보수가 적어서', '고용의 불안정 및 계약의 종료' 로 나타나(안소연 등,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임금 및 고용형태(employment 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관련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 및 부모의 소득 또는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김영식·문찬주, 2018; 이규용·김용현, 2003; 채구목, 2007; 황여정·백병부, 2008) 등에 집중되어 있거나,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이수, 졸업유예 경험 및 출신 지역이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영우, 2018; 김보민 등, 2018; 김영식·문찬주, 2018; 박철성, 2019). 관광전공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관광관련 학과 대학졸업 청년취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안소연 등, 2020), 전문대졸 관광전공 취업자와 사회계열 졸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순·안소연, 2020), 호텔관광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보균 등, 2019), 4년제 관광전공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안소연·임은순, 2018), 관광학과 대학졸업자의 전공만족, 진로탐색 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안소연 등, 2017)나 진로 적응성이 구직효능감과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강현주 등, 2016), 전문대학의 호텔관광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문주현, 2015)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직무일치, 취업 또는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문대졸업자와 4년제대학 졸업자의 비교 연구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재학시 참여하는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한국고용정보원, 2018)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의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행동이 현재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현재 일자리가 있는 청년취업자와 정규직 청년취업자로 나누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체계적인 진로과정 설계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관광전공 졸업자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취업준비 활동

취업준비 활동(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식, 2019; 석민경, 2020). 최근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탐색 행동, 진로준비 활동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조운서, 2021), 구체적인 취업관련 준비행동으로 자격증 취득, 외국어 습득,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턴 및 실습경험 등을 말한다(김건, 2019; 김주섭, 2013). 취업준비 활동은 교내의 취업정보실 방문이나 정보탐색을 통한 취업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 자격증 취득, 취업희망 분야의 일 경험, 이력서 작성, 시험 및 인터뷰 등 본격적인 준비행동을 포함한다(김서리, 2018; 조운서, 2021). 구성요소로는 취업목표, 외국어, 자격증, 대외활동, 각종 시험준비, 자원봉사, 구직기술 함양 등이 있다(조운서, 2021).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학연수 경험과 자격증 수가 많으면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로 취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이만기·김호원, 2015; 이영민 등, 2014). 박천수·나영선(2013)은 외국어 학습이 취업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조성은·이영민(2019)은 자격증 준비는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소연 등(2017)은 4년제 관광전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취업준비 활동으로 이력서 작성 및 면접훈련 교육, 대외활동, 자격증 준비 순이라고 하였다.

대학생활은 취업과 직접연결되는 시기로 다양한 직업탐색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조남근·정미예, 2013; 최인선·주은진, 2019). 서유정 등(2016)은 진로교육을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로선택을 돕고자 대학과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진로교육 교과목 참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김수란·정미경, 2014; 김중운·김현희, 2016; 박천수, 2018; 박화춘·박천수, 2019). 박천수(2018)는 GOMS를 활용하여 2015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47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개별 프로그램으로 보면, 50%를 상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재학 중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종류가 많아질수록 졸업 후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확인된 진로캠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각각 14.6%, 20.1%로 대학생 5명 중 1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내 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이나 전공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박천수, 2018; 박화춘·박천수, 2019).

세부적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취업캠프이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이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 및 임금 수준 향상등의 노동시장 이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천수, 2018). 또한 학생들이 진로교육 활동이 유익하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취업 가능성과 정규직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노경란 등, 2011; 박천수, 2018; 이만기·김호원, 2015). 김윤중(2015)은 대학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으로 취업준비 행동을 하며, 특히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신혜숙 등(2013)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관광전공자의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안소연 등(2017)은 4년제 관광전공 졸업자의 경우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비율이 비관광전공자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적성 검사 등이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며,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건(2019)은 호텔관광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무경험이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학생이 호텔 업무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 취업지도시 학생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직업안정성을 포함한 고용환경 전반에 중점을 둔 취업지도가 필요하며, 호텔업계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진로탐색 행동과 취업준비 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진로탐색 행동 및 취업준비

활동이 취업 및 임금 등 노동시장의 진입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2. 대졸자의 임금에 관한 선행연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먼저 개인변인, 대학변인,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변인은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교육수준 등이다. 이왕원 등(2015)은 남성, 서울지역의 사업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졸업자일수록 초기임금이 높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초기임금이 높다고 하였다. 박성익·조장식(2015)은 종속변수인 임금은 개인이 상위 수준에 집단에 있으면 높고, 업종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학변인은 전공/학과 계열, 대학지역, 학점 또는 평점등으로 구분된다. 고영우(2018)는 비수도권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출신대학 소재지 이외의 비수도권에 첫 직장을 구할경우 이동하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이동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동시장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의 지역이동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황남희·김철희(2012)는 수도권 대학의 졸업자가 지방대학의 졸업자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좋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아버지의 교육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녀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진로탐색 또는 취업준비 활동이 취업성과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백병부·유백산(2011)은 어학능력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및 가정배경, 서울지역 대학 졸업, 학교 만족도, 졸업학점 및 전공계열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박천수(2018)는 재학 중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정규직으로 취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임금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박람회, 직장체험, 취업캠프 참여는 정규직 취업과 임금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진로교육의 체계를 강화하고, 진로교육 수준 제고 및 개인 또는 전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등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희숙·김안나(2014)는 학점과 교내취업캠프, 일자리 탐색,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업준비 활동의 경우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 높여 학생들의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고하고,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기덕·조민호(2016)는 대학재학 중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경험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여, 대학 진학 전 전공관련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은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나이, 전공계열, 대학지역, 학점 또는 평점, 가구나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 사업체의 규모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의 진로탐색 행동 및 취업준비 변수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4년제 이상의 인문대, 사회대 등 전체 대학 졸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광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진로탐색 행동과 취업준비 활동이 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전공자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대졸자 임금과 관련된 선행연구

구분		1	2	3	4	5	6	7	8	9
개인변인	성별	○	○	○	○	○	○	○	○	○
	나이	○	○	○			○		○	○
	결혼여부			○						○
	교육수준					○	○			
	고교 지역/계열			○						
대학변인	전공/학과 계열	○	○	○	○			○	○	
	복수전공 여부	○								

	편입학 여부									○
	대학 지역	○		○	○	○		○	○	
	학교 유형		○		○			○		
	학점 또는 평점	○			○		○	○		○
	대학 만족도							○		○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자격증/시험준비			○	○			○		
	직업훈련	○		○				○		
	영어성적 취득 여부				○			○		
	해외어학 연수			○	○			○		
	취업전 취업목표			○			○	○		
	재학중 일자리 경험			○				○		
일자리 특성	산업/직업분류		○	○		○				
	사업체 규모		○	○	○					
	사업체 지역/유형			○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				○	○				
	전공일치 정도			○		○				

주: 연구자(년도)/종속변수/그 외 변수; 1. 김보민·조대연(2018)/취업률, 첫 직장에서의 임금/가족 배경 변인, 2. 고영우(2018)/비수도권 대졸자의 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 비수도권 대졸자의 비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 3. 박천수(2018)/정규직 취업 여부, 첫 일자리 월평균 급여/가족 배경 변인, 4. 정기덕·조민호(2016)/취업성과(임금)/가족 배경 변인, 5. 이왕원·김문조(2015)/(7~10차년도) 임금/가족 배경 변인, 6. 박성익·조장식(2015)/임금, 업종의 평균 임금/가족 배경 변인, 7. 조희숙·김안나(2014)/대졸자의 첫 직장 임금/가족 배경 변인, 8. 황남희·김철희(2012)/첫직장 기업규모, 첫직장 중소기업 취업 후 임금/가족 배경 변인, 9. 백병부·유백산(2011)/직장의 규모 및 고용형태, 첫 직장에서의 연봉/가족 배경 변인.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 III.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준비 활동경험 등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개인변인은 대졸자의 임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성별, 나이, 전공계열, 학과계열, 대학지역, 학교 유형 및 학점 등을 변인으로 고려하였으나(강순희, 2019; 고영우, 2018; 김보민 등, 2018; 박재민, 2011; 박천수, 2018; 박철성, 2019; 백병부·유백산, 2011; 서준교 등, 2017; 이왕원·김문조, 2015; 이재성, 2015; 정기덕·조민호, 2016; 조희숙·김안나, 2014; 황남희·김철희, 2012), 본 연구에서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전공계열, 학과계열 등의 변인은 제외하고, 성별, 나이, 졸업학점을 개인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안소연 등(2017)의 연구에서 이직준비를 하는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직준비 여부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졸업대학과 사업체의 권역별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졸업대학 권역과 사업체 권역 변수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고용형태, 이직준비와 고용형태 임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졸업대학과 사업체의 권역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개인변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1.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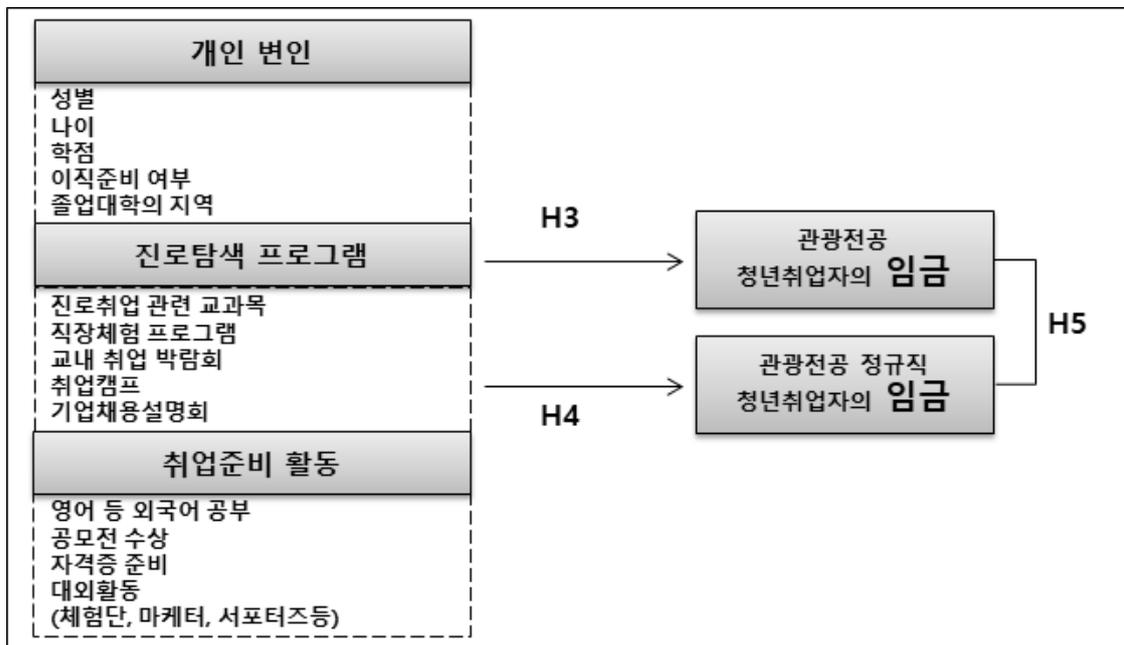
H1-2. 이직준비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취업자의 졸업대학 및 사업체의 권역은 다를 것이다.

대학재학 중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 준비행동은 취업성과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민 등, 2018; 김영식·문찬주, 2018; 박성익·조장식, 2015; 박천수, 2018; 이재성, 2015; 정기덕·조민효, 2016; 조희숙·김안나, 2014). 박천수(2018)는 취업박람회, 직장체험, 취업캠프 참여가 정규직 취업과 임금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조희숙·김안나(2014)는 교내취업캠프, 일자리 탐색,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진로교육 교과목 참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변수를 추가하였으며(김수란·정미경, 2014; 김중운·김현희, 2016; 박천수, 2018; 박화춘·박천수, 2019), 윤지영·임정연(2020)과 정주영(2018)의 연구에서 기업채용 설명회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관광전공 졸업자의 경우 관광산업으로 취업할 때 전문인력으로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진로탐색 행동 변수는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교내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기업채용 설명회 참여여부이다.

조운서(2021)는 정규직이며,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중위수 이상의 임금을 충족하는 것을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으며, 사회계열 대졸자의 대외활동, 면접준비, 공모전 등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은 취업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박천수·나영선, 2013), 자격증 취득은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로의 취업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민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 공부,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참여 여부를 취업준비 활동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정규직 청년취업자간 임금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 H3: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활동경험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활동경험이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정규직 청년취업자간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 및 대학변인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활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변수선정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취업준비 활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임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0보다 큰 연속변수이므로 통상적으로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김보민 등, 2018) 본 연구에서도 'ln(임금)'의 자연로그로 취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 취업준비 활동 여부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았다. 우선 개인변인은 성별, 나이, 졸업대학 권역, 학점, 이직준비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은 권역으로 변환하여 서울권(서울), 경인권(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으로 구분한 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학점은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이직준비를 하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교내취업 박람회, 취업캠프, 기업채용 설명회로 구성하였으며, 참여한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 취업준비 활동경험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한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설명 및 투입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설명 및 투입방법**

구분		변수 설명	변수투입방법
종속변수	임금	현재 임금	ln(임금)
독립변수	개인변인	성별	남자=1, 여자=0
		이직준비	하고있다=1, 그렇지않다=0
		나이, 학점	연속변수
	졸업대학권역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더미변수(기준: 서울권)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교내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기업채용 설명회	있다=1, 없다=0
취업준비 활동경험	영어 등 외국어 공부,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있다=1, 없다=0	

## 3. 분석자료 및 표본구성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년 GOMS'인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GOMS는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명을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공개된 GOMS 2016을 사용하였다. GOMS 자료는 2007년 졸업생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집단(498,827명)의 약 3.7%인 18,310명으로 '노동패널'이나 '지역별 고용조사'에 비해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이지호, 2019), 대학을 졸업한 후 18개월이 지나 실제로 구직이나 취업이 된 상황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대상자들의 나이 분포가 좁으며, 경력연수를 2년 이하로 통제하여 순수하게 대학 졸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유리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준비 활동경험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GOMS는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2015)를 기준으로 학과를 나누고 있어 관광관련학과에 대한 분류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특히 학과 소분류에서 '경영학'으로 분류되어 학과명이 관광경영학과, 관광호텔관광학과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학과중분류단위에서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안소연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소연 등(2017)의 연구를 기준으로 일반대학교의 '경영학과'로 포함되어있는 42개 학과(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부, 항공서비스경영학과 등)를 관광관련학과로 재분류하였으며, 세분류 기준을 '관광', '호텔', '여행사', '리조트', '컨벤션'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 관광전공 졸업자 135명 중 현재 일자리가 있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 105명으로 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IV. 실증 분석

### 1. 표본의 특성

<표 3>을 살펴보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는 105명으로 여성이 66명으로 남성(3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전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 취업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규직은 69명으로 비정규직 34명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서울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29), 경인권(19), 전라권(11), 충청권(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 직장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1~29인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30~299인이 27명으로 순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작은 일자리의 취업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은 201.9만 원으로 4년제 대학(일반대) 취업자의 평균인 227.8만 원보다(교육부, 20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관광전공자 청년취업자 표본의 특성

(N=105)

구분		빈도(명)	비중(%)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	39	37.1	학점	100점 환산	82.08점	
	여	66	62.9	임금	임금	201.9	
정규직 여부	정규직	69	65.7	이직준비	예	26	24.8
	비정규직	34	32.4		아니오	79	75.2
	모름	2	1.9	현직장 사업체 종사자 수	모름	7	6.7
사업체 권역	서울권	38	36.2		1~29인	47	44.8
	경인권	19	18.1		30~299인	27	25.7
	충청권	8	7.6		300인 이상	24	22.9
	경상권	29	27.6				
	전라권	11	10.5				

주: 사업체 권역은 서울권(서울), 경인권(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을 의미함.

### 2. 차이검정

‘가설 1. 개인 및 대학변인 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우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임금이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약 240만 원, 여성이 약 179만 원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표 4>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 분석(독립표본 T-검정)

고용형태	성별	남성		여성		평균차	t	p
		M	SD	M	SD			
전체		240.44	88.579	179.12	64.341	-61.315	-4.091***	.000
정규직		240.30	79.187	213.25	51.999	-27.053	-1.691*	.096
비정규직		189.40	65.378	141.90	50.035	-47.503	-1.879*	.069

\* $p < .1$ , \*\*\* $p < .01$

이직준비 여부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직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정규직의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이직준비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 분석(독립표본 T-검정)

고용형태 \ 이직준비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평균차	t	p
	M	SD	M	SD			
전체	149.81	64.360	219.04	76.969	-69.23	-4.132***	.000
정규직	185.00	43.745	234.86	68.427	-49.86	-2.414**	.019
비정규직	126.54	62.081	162.71	44.755	-36.176	-1.974*	.057

\* $p < .1$ , \*\* $p < .05$ , \*\*\* $p < .01$

‘가설 2. 취업자의 졸업대학 및 사업체의 권역은 다를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서울권, 경상권, 전라권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업체로 이동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인권과 충청권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서울권에 있는 사업체로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검정되었다(<표 6>).

<표 6> 졸업대학-사업체 권역별 이동 비교

구분		사업체 권역					N=105, 단위: 명(%)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전체	$\chi^2$	p
졸업대학 권역	서울권	14(70.0)	4(20.0)	2(10.0)	0(0)	0(0)	20(100)	84.356	.000***
	경인권	7(46.7)	5(33.3)	1(6.7)	1(6.7)	1(6.7)	15(100)		
	충청권	11(50.0)	7(31.8)	3(13.6)	1(4.5)	0(0)	22(100)		
	경상권	3(8.8)	1(2.9)	1(2.9)	25(73.5)	4(11.8)	34(100)		
	전라권	3(21.4)	2(14.3)	1(7.1)	2(14.3)	6(42.9)	14(100)		

### 3. 선형회귀분석 결과

‘가설 3.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활동경험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4. 개인변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준비 활동경험이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선형회귀분석 모형은 VIF가 1.153에서 3.202사이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고, F-값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조정된 R<sup>2</sup>값은 .361,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조정된 R<sup>2</sup>값은 .362으로 각각 전체 변동의 36.1%와 3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4’를 검정한 결과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는 남성이고, 학점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다. 이직준비를 하고있으면 임금이 낮았고, 졸업대학 권역이 전라권인 경우 서울권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 취업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 다른 지역 대학의 졸업생보다 임금이 높았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에서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채용 설명회 참여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ln(임금)						
구분		관광전공 청년취업자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			
독립변수		<i>B</i>	<i>SE</i>	<i>Beta</i>	<i>B</i>	<i>SE</i>	<i>Beta</i>	
개인변인	(상수)	4.750***	.938		4.314***	.635		
	성별(기준: 남성=1)	.320***	.112	.349***	.030	.069	.056	
	나이	-.029	.043	-.107	.035	.026	.230	
	학점	.015**	.006	.295**	.003	.003	.097	
	이직준비 여부(기준: 하고 있다=1)	-.298***	.096	-.290***	-.123	.075	-.170	
	졸업학교 권역 (기준: 서울권)	경인권	-.089	.130	-.070	-.271***	.094	-.350***
		충청권	-.026	.136	-.024	-.204**	.100	-.308**
		경상권	.009	.141	.010	-.251**	.103	-.433**
		전라권	-.334**	.165	-.256**	-.312***	.115	-.344***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기준: 참여한적 있다=1)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126	.086	.138	.197**	.080
직장체험 프로그램			.055	.084	.059	.133*	.078	.229*
교내 취업박람회			-.006	.088	-.006	-.033	.077	-.056
취업캠프			.181*	.091	.154*	.045	.081	.063
기업채용 설명회			-.022	.112	-.022	-.172**	.079	-.289**
취업준비 활동 경험	(기준: 경험한적 있다=1)	영어 등 외국어 공부	-.031	.093	-.029	-.035	.081	-.054
		공모전 수상	-.203	.130	-.164	-.095	.092	-.132
		자격증 준비	-.161	.099	-.176	.045	.078	.081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159	.104	.148	.063	.085	.102
F(p)	3.08***(.000)			5.31***(.001)				
Adj. R <sup>2</sup>	.361			.362				

\* $p < .1$ , \*\* $p < .05$ , \*\*\* $p < .01$

‘가설 5’인 전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표 8>과 같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는 성별, 학점, 이직준비 여부, 졸업대학 권역, 취업캠프 변인이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규직 청년취업자는 졸업대학 권역,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기업채용 설명회가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 변수에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졸업대학 권역이다.

〈표 8〉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전공 청년취업자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
개인변인	성별, 학점, 이직준비 여부, 졸업대학 권역	졸업대학 권역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기업채용 설명회
취업준비활동 경험	없음	없음

## V. 결론

본 연구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대학 변인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고용형태, 이직준비 여부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었다.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남성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 후 18개월 시점에서 취업하고 있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직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이 낮았다. 따라서 청년취업자의 고용형태와는 별개로 이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의 주된 원인이 '보수가 적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직준비를 하는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난 안소연 등(2017)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서울권, 경상권, 전라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취업자는 대학졸업 지역에 있는 사업체로 이동하지만, 경인권과 충청권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서울권에 있는 사업체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경인권 및 충청권은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이동이 용이하여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들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고 학점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다. 그리고 이직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임금이 낮았다. 졸업대학이 전라권인 경우 서울권에 있는 대학 졸업자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취업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취업자의 임금이 높았으며, 취업준비 활동 요인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중 취업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취업준비 활동이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다른지역 대학의 졸업자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들도 졸업대학의 지역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희삼, 2010; 조희숙·김안나, 2014). 특히 정규직 청년취업자 집단에서 임금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큰 -.433인 경상권에 있는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권 외에 있는 관광관련 학과에서는 지역의 관광주력 산업을 파악하고 그에 특화된 지역의 관광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과 직장체험 참여경험이 있는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 신혜숙 등(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윤지영·임정연(2020)의 연구에서 직장체험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4년제 대졸자의 임금이 높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그리고 기업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임금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윤지영·임정연(2020)의 연구와 일치하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기업채용 설명회 참여 및 참여횟수는 취업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주영(2018)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은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배치를 통해 심층적인 진로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전공자들이 올바른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4년제 대학의 관광전공 졸업자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비관광전공자들에 비해 낮아(안소연 등, 2017), 관광전공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독려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임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졸업대학 권역이었다. 취업준비 활동경험은 모든 변수가 두 집단 모두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 활동이 첫 직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격증 취득과 영어 능력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수혜·김경근, 2010; 김진영·최영재, 2010; 임천순·양병무, 2006; 조희숙·김안나, 2014). 한편 문승규 등(2014)의 취업준비 행동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격증 취득과 어학 점수는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로의 취업에 효과적이며(이영민 등, 2014), 외국어 학습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박천수·나영선(2013)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호텔·항공·컨벤션 등의 국제적 교류가 많은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어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여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성공적인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취업캠프를 강화시켜야 하며, 프로그램 기획시 계열과 학생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광전공자들이 바람직한 진로방향 및 취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취업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관광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재학생 위주의 전공만족도를 연구하거나 졸업생 대상의 진로 탐색 및 취업준비 행동이 비관광 전공자와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들의 임금에 개인변인, 대학변인 외에 대학재학시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준비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현재 관광전공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이 성공적인 취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취업교육 및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안소연 등, 2017). 실질적으로 윤지영·임지영(2020)은 취업캠프 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질적인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기업채용 설명회의 효과가 낮아 내실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으나(김보균 등, 2019), 졸업생의 만족은 일자리로의 진입정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4년제 대학의 관광전공자가 차별화된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관광전공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2년제 대학의 관광전공자 또는 타전공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진로탐색 행동 및 취업준비 활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졸업대학의 지역과 사업체 지역의 이동을 파악하였는데 서울권으로 이동이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권역별 이동을 통해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거나(고영우, 2018), 하나의 노동시장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의 이동 또는 원래 거주하던 곳과 졸업한 대학의 권역이 달라 졸업 후 원래 거주지로의 이동등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GOMS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분석되어, 현재의 최저시급 및 근무시간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의 관광업계로의 진출하는 비율이 20%로 낮아(문화체육관광부, 2017), 관광업 취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취업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광전공 정규직 청년취업자의 경우 기업채용 설명회 참여는 임금을 낮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순희(2019). 대졸청년의 눈높이가 조기 이직에 미치는 영향과 재학 중 진로탐색활동의 조절효과. *직업과 자격연구*, 8(1), 119-140.
- 강헌주·정지수·이주형(2016). 전문대생의 진로 적응성이 구직효능감과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00(4), 17-42.
- 고영우(2018).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에서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비수도권 대졸자의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9-29.
- 교육부(2019).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
-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
- 김건(2019). 호텔관광전공학생들의 취업준비 행동이 취업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Tourism Research*, 44(4), 25-41.
- 김난영(20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관광교육의 수업 질, 수업만족,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9(5), 207-226.
- 김보균·이효성·김홍범(2019). 호텔관광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1(2), 61-74.
- 김보민·조대연·최형재(2018).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2), 119-156.
- 김상식(2019). 농업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티고 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및 취업준비 행동의 구조적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서리(2018). 취업준비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장벽 및 취업준비 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란·정미경(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 김수혜·김경근(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 김영식·문찬주(2018). 초과학기 이수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429-451.
- 김윤중(2015).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293-7299.
- 김은애·진성미(2015).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 겪는 경험: 근거 이론적 접근. *직업교육연구*, 34(3), 67-90.
- 김종운·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 409-433.
- 김주섭(201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16(4), 31-59.

- 김진영·최영재(2010).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의 역할. *노동정책연구*, 10(3), 1-33.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55-92.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문승규·최기성·임세영(2014). 대학취업지원 서비스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및 취업 질에 미치는 영향. *역량개발학습연구*, 9(2), pp.27-50.
- 문주현(2015).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호텔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텔관광연구*, 17(1), 323-347.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7). *2013년~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박성익·조장식(201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대졸 신규취업자 임금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1), 65-75.
- 박재민(2011). 대학 졸업생의 직업선택과 임금 수준. *기술혁신학회지*, 14(1), 22-39.
- 박천수(2018).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18(4), 51-75.
- 박천수·나영선(2013).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외국어와 직업훈련의 연관효과. *직업교육연구*, 32(6), 1-20.
- 박철성(2019).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 간 졸업 후 첫 직장에서의 임금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8(2), 143-172.
- 박화춘·박천수(2019). 진로교과목과 직장체험 참여 경험이 일자리 만족, 직업과 적성 및 전공 일치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2), 109-137.
- 백병부·유백산(2011). 편입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3), 99-117.
- 서유정·박천수·정윤경·김수원(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준교·김용현·이성근(2017).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 및 임금 효과분석: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4), 61-80.
- 석민경(2020).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불안, 구직효능감,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졸업 후 취업상태, 성별, 대학소재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숙·남수경·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안소연·오영주·임은순(2017). 관광학과 대학졸업자의 전공만족,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식산업학회지*, 13(3), 203-219.
- 안소연·임은순(2018). 4년제 관광전공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0(4), 15-27.
- 안소연·임은순·김하니(2020). 관광관련학과 대학졸업 청년취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계열 주요학과와의 비교. *호텔리조트연구*, 19(1), 361-381.
- 윤지영·임지영(2020). 4년제 대졸자의 진로 및 취업준비 행동이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8(4), 181-212.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만기·김호원(2015).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 활동의 영향 분석. *취업진로연구*, 5(4), 115-138.
- 이영민·이수영·임정연(2014).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337-374.
- 이왕원·김문조(2015). 한국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와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규정관리연구*, 10(1), 187-223.
- 이재성(2015). 4년제 대졸자의 초과등록 현황 및 노동시장 성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8(2), 6-22.
- 이지연·정숙영·방혜진(2009). 사이버 진로상담 장기내담자 유형 및 효과적 상담 접근 방식 탐색. *상담학연구*, 10(4), 2169-2186.
- 이진영·최장수(2021). 지역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관련 전공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1), 393-416.
- 이치호(2019). 대졸청년층의 취업지역에 대한 자기선택을 고려한 임금합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42(3), 39-74.
- 임은순·안소연(2020). 전문대졸 관광전공 청년취업자와 사회계열 졸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텔관광연구*, 22(4), 29-42.
- 임천순·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5.
- 정기덕·조민호(2016).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금과 직무불일치 해소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2), 237-259.
- 정대영·이수진(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꾼다.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1-25.
- 정주영(2018). 인문·사회계열 대졸 청년층이 경험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경험과 취업목표 달성 간 관계분석. *교육문화연구*, 24(5), 289-307.

- 조남근·정미예(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 조선비즈(2019. 12. 23). 대졸자 10명 중 3명은 '하향취업'. 학력과잉 영향. Retrieved July 29, 2020,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2/2019122200135.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2/2019122200135.html)
- 조성은·이영민(2019). 대졸자의 자격 취득 결정요인 및 자격의 효과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3), 69-98.
- 조운서(202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 행동이 취업 및 관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33-161.
- 조희숙·김안나(2014). 대졸자의 첫 직장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대학특성 요인. *교육종합연구*, 12(4), 263-280.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최인선·주은진(2019). 대학생의 인구학적 변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인문사회21*, 10(2), 515-528.
- 통계청(2020). *고용동향(7월)*.
- 한국경제(2015. 09. 21). 신입사원 퇴사 결정적 이유는? Retrieved August 3, 2020,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5092112087>
- 한국경제(2020. 08. 13). 청년 체감 실업률 사상최고, Retrieved December 30, 2020, from <http://www.hankyung.com>
- 한국고용정보원(2018). *GOMS 2016 대졸자 취업정보*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4년제 대학생의 스펙 쌓기 실태*.
- 황남희·김철희(2012). 대졸청년층의 첫 직장 기업규모와 임금격차. *정책분석평가학회*, 22(4), 217-236.
- 황영정·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 1-23.